

3通·재가동 시점·기업 피해보상 방안 논의

〈통신·통행·통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1차 회의

공동위 지원 사무처 구성도 협의

남북한은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남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7차회담이 끝나고 공동위원회 1차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박철수 위원장과 여겨 있는 위원들 모두 다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 같이 일하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인데 1차회의에서도 좋은 절기에 맞게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함께 가동 중단 다섯 달을 맞은 개성공단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재가동 시점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북측은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을 먼저 하자고 강조한 반면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 합의된 대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재가동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는 공동위 기본임부와 산하 분과위 운영 방식, 공동위·분과위 개최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북측은 재가동 문제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남북간의 협의가 순조롭다면 이번 주 안이라도 개성공단은 부분적인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

만, 협의가 난항 한다면 재가동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재가동 시점과 관련, "합의에 다 되기는 어렵다"면서 "오래수 문제만 해도 미생물이 배양되어야 하는데 전기도 들어온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본격적인 재가동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남북은 또 공동위 운영 일정, 3통(통신·통행·통관)·출입체류 등 제도 개선 방안과 기업피해 보상 방안, 공동 재가동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이와 별도로 오전 회의에서 공동위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조안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남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우리측 분과위원장 겸 공동위원인 허진봉 통일부 과장(출입·체류), 박병기 기획재정부 과장(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과장(통행·통신·통관),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제협력정책과 과장(통행·통신·통관),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제협력정책과 과장(통행·통신·통관),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제협력정책과 과장(통행·통신·통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재가동 시점 외에도 4개 분과위의 개최 시점과 공동위를 지원할 사무처의 구성, 사무처장의 '급'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남측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법적 유치한 수영대회 왜곡 광주에 상처 준 나쁜 세력 있다”

강운태시장 정례조회서 밝혀

강운태 광주시장은 2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 많은 오해가 있다"며 "(오해는) 나쁜 세력이 만들어 낸 것이며, 언젠가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직원 정례조회에서 "올 해 광주시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꼽으려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우리 힘으로 유치한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에서 민주당 지도부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마치 없는 공문서를 위조로 만들어 대회를 유치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세계수영대회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유치했다. 초기에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곧바로 이를 사과하고 회회했으며, 정부보증을 원본으로 대회를 유치한 것이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도 광주가 마치 범법집단인 것처럼 먹칠을 한 '나쁜 세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수개월 전에 유치신청서 위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광주시가 이를 시정했는 데도 대회 개최지 결정 프레젠테이션을 5시간 반 앞두고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며 "과장되고 왜곡되게 폭로한 '나쁜 세력'은 언젠가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고 왜곡된 폭로로 광주에 상처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문서 위조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오는 5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광주에 상처를 준 나쁜 세력이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 WHO 대북 인도사업 630만달러 지원

새정부 출범후 두번째... 12개 민간단체 23억 지원도 승인

통일부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630만 달러(약 69억500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총 1260만 달러 규모로, 정부는 우선 절반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정부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을 거쳐 지급 절차가 완료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기구의 대

북 사업을 지원한 것은 지난달 유니세프에 604만 달러(67억원)를 보낸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최근의 개선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국내 12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13건(23억 5000만원 상당)도 승인하기로 했다.

이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은 유치원과 탁아소 등에 들어가는 빵 재료, 학용품 등과 함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병원에 필요한 의약품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의 국내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은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의약품 지원과 7월 말 5개 단체의 대북지원 승인 이후 세 번째다. 앞서 두 건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식·의약품 등만 승인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주민용 필수 의약품도 지원품목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단체별로 이뤄지는 북측과의 협의 결과와 분배투명성 확보 계획, 지원물품 준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이들 단체의 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민주당, 시리아 작전 제한 수정안 마련”

정치전문매체 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개입 승인을 얻고자 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이 작전 범위를 한정하는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상원 임시의장이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은 1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원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보좌관들이 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히 의원은 "정부가(군사작전 범위에 관해) 제약을 두지 않아 많은

의원들의 불만이 있다"며 자신도 현재 정부안은 지지하지 않겠지만 더 엄격한 초안이라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식통들은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와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들이 미국의 시리아 군사작전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총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보좌관은 정부안이 지상군 파병도 금지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회 지지를 얻기 위한 핵심요소로 봤다.

한편 여러 의원들은 이번 시리아 군사 개입 승인이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세계 친환경상품 디자인박람회 2016년 전남서 열린다

소비 사회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친환경상품 디자인박람회가 2016년 전남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2일 세계 15개국 800여 디자인업체가 참가하는 '2016 세계친환경상품 디자인박람회'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세계친환경상품 디자인박람회는 '녹색의 땅, 친환경디자인'이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며 관람객 예상 규모는 88만여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세계친환경상품 디자인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기재부에 '국제행사 개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람회 개최지는 전남도농업

기술원으로 국제농업박람회장의 기존 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 결정됐다.

박람회장은 3개의 주제관과 3개의 특별시설로 이뤄진다. 주제관은 스마트 그린관, 예코농수산관, 미래관이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국내의 고품질 농수산물, 전통식품, 친환경 농수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 디자인 전시 및 판매장이 운영되고 국내와 농수산물 전문기업 홍보전시회를 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관광문화육성은 "이 박람회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에 대한 국제적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기술개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
 대지권 1924㎡ 건물 3290㎡
 감정가격 47억3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오빌딩 5층 별양 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부실속 친환경 명품주택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6-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4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4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지 】
 4,864㎡

【 공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